

인터넷 교통방송국

임중선

((주) LGCNC 도시시스템 담당, 이사)

1. 배경

거대도시 서울의 교통환경은 도심지역의 경우 최소통행 속도에 접근할 만큼 악화일로 추세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물리적 투자와 함께, 도시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상의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에 각별한 노력을 쏟고 있다. 이렇게 수집, 가공된 교통정보가 전달되는 여러 과정에서, 가장 시민들에게 가까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서울시 교통방송본부이다.

교통방송본부의 교통정보 수집 및 가공 과정은, 초기의 제보원 중심의 정보수집에 비해 보다 체계화되고 과학화되었다. 이처럼 시스템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 자체 교통정보 수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함께,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해온 ITS 사업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남산권 교통관리시스템, 경찰청 CCTV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 등)과, ROTIS 등 민간 교통정보 사업자들의 실시간 교통정보가 그 배경이 되었다. 이처럼 수도권 내의 다양한 내,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다중 정보들을 융합 (Data Fusion) 하여, 방송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교통방송본부는 통합 교통정보 제공의 관문(Integrated Traffic Information Portal) 성격을 지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통정보 제공 기능의 집중화, 통합화 추세의 중심에 서울시 교통방송본부가 있는 것이다.

2. 서울시 교통방송본부 개요

서울시 교통방송본부는 88올림픽을 대비한 교통방송 설치계획에 의거하여, 1990년에 개국을 하였다. 청취자가 제보자가 되어 활동을 하는 교통방송은 시민의 방송, 움직이는 라디오를 표명하며, 시민을 위한 교통정보전문 공익 방송을 모토로 하고 있다. 개국 후 다소의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교통정보 수집 및 가공, 전달 체계를 보유하게 되었다.(표1)

(표1) 서울시 교통방송본부 현황 (2001년말 기준)

| 구분 | | 내용 |
|------------|----------|--|
| 방송 편성 | 방송 시간 | 1일 22시간 (05:00~익일03:00) |
| | 주간 편성 내용 | 교통 80시간(52%), 교양 65시간(42%), 오락 9시간(6%) |
| 조직 | 기구 | 2국1실7부 |
| | 인력 | 120명 |
| 교통정보 센터 현황 | 근무 인원 | 38명 |
| | 주요 수집 장비 | CCTV 120대, TRS 500대 |

최근 서울시 교통방송본부는 종합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터넷 교통방송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함에 따라, 지난 10월21일 iTBS 를 개국하고 송출을 개시하였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 통합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의 중추로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시내 주요 도로의 소통정보, 주요 지점의 CCTV 동영상 정보, 빠른 길 찾기 서비스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되며, 청계천 복원 사업에 따른 도심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ITBS 시스템 개요

작년 8월 수립된 인터넷 교통방송국 구축계획에 의거, 금년 4월 iTBS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 이래 6개월 간의 구축 기간을 거쳐 금년 10월1일 시험방송을 개시하였다. 본 사업은

첫째, 실시간 교통정보를 인터넷상에서 방송함으로써 교통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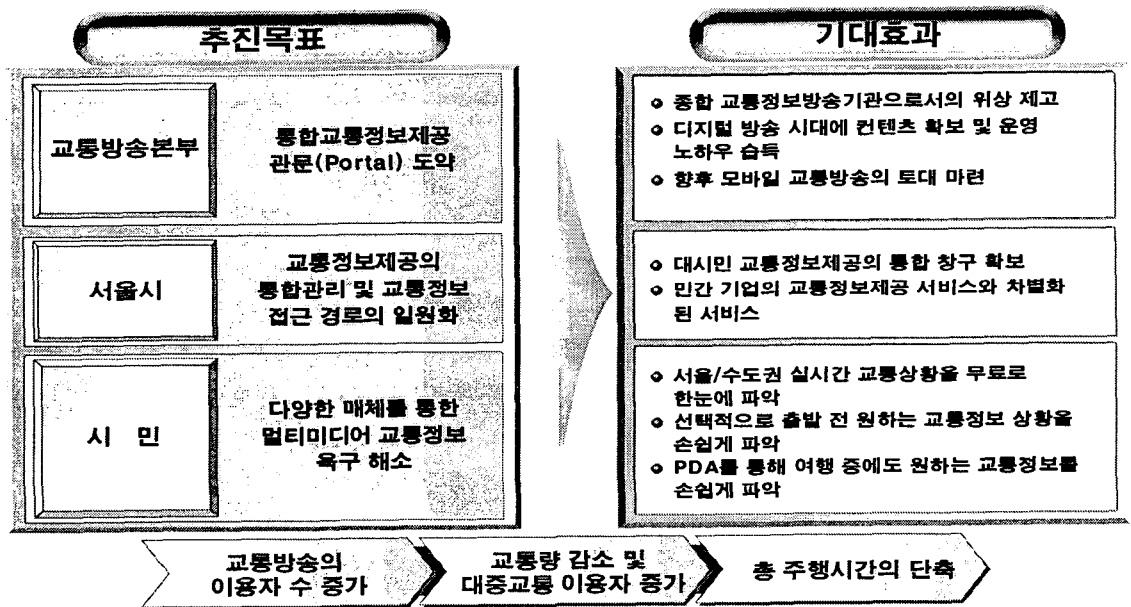
둘째, 각 기관별 또는 시스템별로 제공되고 있는 분산된 교통정보 및 시정홍보물들을 교통방송에서 수집, 가공하여 인터넷 망으로 제공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향상하며,

셋째, 신 개념의 멀티미디어 교통방송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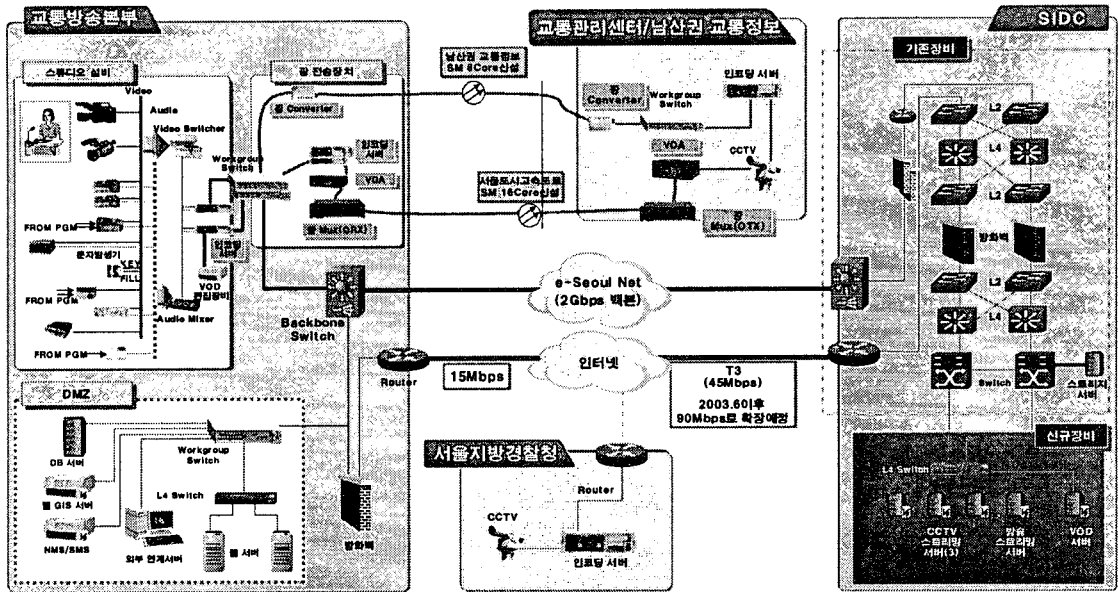
넷째, 향후 모바일(Mobile) 인터넷 교통방송 서비스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여 미래를 대비함에 사업의 의의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는 (그림1)과 같다.

인터넷 교통방송이 개국함에 따라 수많은 시민과 운전자에게 수도권 지역의 교통정보가 매 시각 5분 단위로 보다 세밀하게 제공되며, 인터넷 교통방송에 연계된 서울시의 각종 권역별, 도로 축별 정보 역시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특히 출,퇴근 시각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는데 이는 생방송 시간에 참여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필요정보를 요청할 경우 개인별로 휴대전화를 통해 해당정보를 무료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도로의 우회정보, 단거리 코스정보, 예상도착시간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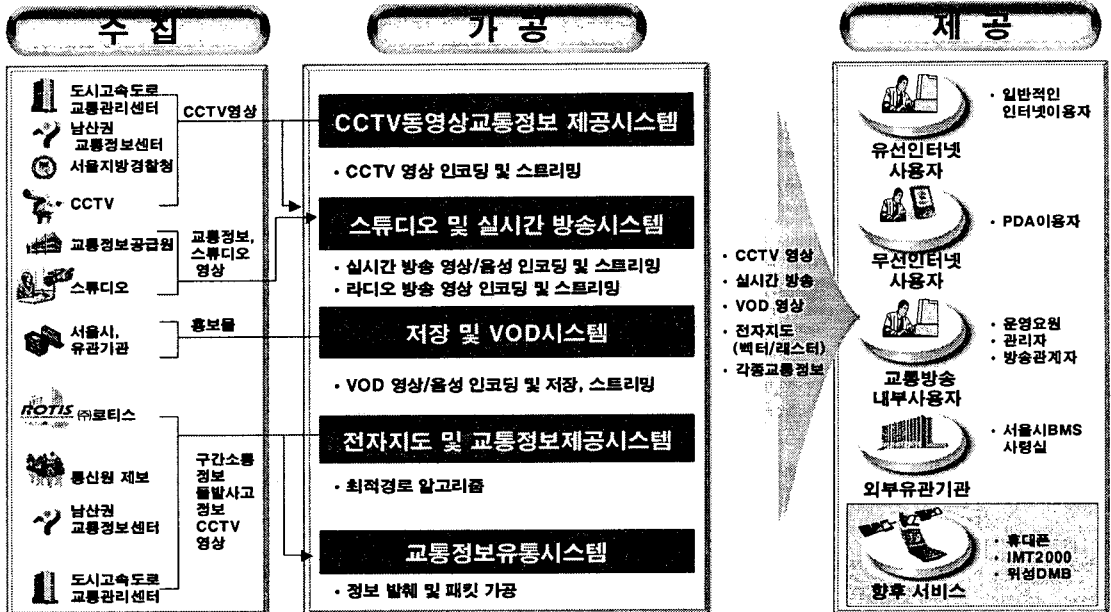
구축된 시스템 구성을 살펴보면 교통방송본부가 CCTV 동영상 교통정보 제공시스템, 스튜디오 및 실시간 방송 시스템, 저장 및 VOD시스템, 전자지도 및 교통정보제공시스템, 교통정보 유통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을 서울시 전산



(그림1) 사업추진 목표 및 기대효과



(그림2) 인터넷 교통방송국 시스템 구성도



(그림3) 교통정보 수집/가공/제공 절차

관리소(SIDC) 등과 연계를 통하여 개발하고 기존의 서울시의 교통관리센터/남산권 교통정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정보를 활용하고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2)

수집된 교통정보는 가공 및 전달 프로세스를 거쳐, CCTV 영상, 실시간 방송, VOD 영상, 전자지도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자세한 절차는 (그림3)과 같다.

특히 가공 단계에서, 타 기관 교통정보 센터로부터의 정보 및 CCTV 정보, 통신원 제보 정보 등의 다양한 이종 정보들을 융합하고 결측치를 보정하여, 가장 유의미한 정보들을 추출해 내는 Data Fusion 과정은, 기존 라디오 방송에서 '전자지도에 의한 교통정보 표출' 시스템을 다년간 운영해 온 시스템을 인터넷 방송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4. 결론 및 제언

교통방송이 수 많은 시민과 운전자를 위해, 정제되고 체계화된 교통정보를 적절한 전달체계와 제공방법으로 24시간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됨으로써, 보다 개선된 도로 환경 조성과,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이번 인터넷 교통방송국 개국은 정보제공 과정의 시스템화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제는 MC와 전문 리포터 이외에도 Web, 휴대폰, PDA를 통해 실시간으로

맞춤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는 듣는 방송에서 눈으로 보는 종합 멀티미디어 교통방송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교통방송본부가 진정한 교통정보 제공의 관문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첫째, 수집 체계 및 전달 매체가 보다 다양화 되어야 한다. 수도권이 서울시 중심권에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 및 도시기능의 외곽화가 진행되어 보다 광역화 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향후 교통방송본부의 존재 의의와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방송본부 자체의 정보 수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제공 체계를 더욱더 다양화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 연계를 통한 정보의 가치 제고이다. 경찰청, 도로공사 등 정부 주요기관 외에 민간교통정보회사, 물류회사, 자동차 회사 등과 정보연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의 가치 제고는 통합과 연계를 통해서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되며,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추세에 순응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한 순차적 진행으로 교통방송본부의 교통정보 가치 자체를 제고 시켜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울시 교통방송본부가 수도권 전역의 교통정보를 통합 수집, 가공, 제공하는 광역 정보망 구축의 중심에 서게 되길 기대한다.